

2014. 2. 6.(木)
第213회 臨時會

市 政 報 告



仁川廣域市

**존경하고 사랑하는 293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2014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아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3년은
인천 정명 600년, 개항 130주년이 되는 해로써
연비어약의 기세로 “제2의 개항, 도약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모두가 함께 노력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건전재정 3대 원칙으로
유동성 위기가 해소되었으며,

영국의 저명한 시사경제주간지 EIU가
인천을 2025년까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시로 선정한 것은 물론,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민선5기 동안 61억 3천 1백만 달러의 투자유치와
(2003년 경제청 개청이후 투자유치 총액 99억 1천 700만 달러의 61.8%)
4만 9천 7백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었고

특별히, GCF 및 World Bank 오픈과 더불어
2015년 세계 책의 수도와 세계교육회의 개최지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경제수도 인천의 핵심사업인 3-Care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추진 결과
2013년 보육정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물론,
국정평가 분야 전체 9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1위를 하여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LG전자, 청운대학교 등 기업투자자와
앵커시설 유치로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의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정책의회, 열린의회, 책임의회를 모토로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시는 시정목표를
“ 300만 경제수도, 도약하는 인천 ” 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정운영방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아시안게임,
함께 잘사는 원도심 만들기,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정하였습니다.

사상 처음 2조 213억원으로
국비 2조원 시대를 맞아
2014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의 차질없는 건설과
각종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아시안게임을 개최할 예정이며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도심을 재창조해 나가는 것은 물론

성장동력의 재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와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금년도
주요 역점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아시안게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4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주경기장 국비확보는
금년에도 561억원을 포함하여
총 1천 326억원을 확보하면서 공사가 금년 4월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다양한 교류·협력에 바탕한
노력의 결과

북한 남·녀 축구팀이 아시안게임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인천이 남북협력의 전진기지로서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참가종목, 선수단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 사후활용 측면에서는
주경기장을 비롯한 16개 신설경기장을
지역주민의 거점 문화공간으로서
시민이용 편익을 증대시키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장별 특성에 맞는 수익성 강화 등
다양한 사후활용 방안도 병행하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지원체계를 구축·관리하여
대회 참여분위기 확산과 품 조성을 위해
범시민지원협의회와 연계하고
서포터즈를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교통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인선 개통, 청라-강서간 BRT노선 개통 등으로
일부분 급한 교통수요는 충족되었으나
앞으로도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구간 건설 및
송도-청량리간 GTX 건설 등으로
교통만족도를 높여가는 것은 물론,

대회기간 동안 특별교통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외 손님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함께 잘사는 원도심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5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주민주도형
'인천형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괭이부리마을의 성공을 통해 보았듯이
원주민이 100% 재정착하는
함께 행복한 인천형 마을의 모범을 만들기 위하여
2013년 8개 사업, 2014년 13개 사업 등
총 21개의 저층관리형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 건물 등에
글로벌 인천컨텍센터를 유치하여
향후 최대 3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하는 것은 물론,
인천내항 1, 8부두 재개발 사업과
MWM CITY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재개발과 재건축이 결합된
저렴한 비용과 동등한 조건으로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신개념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송영길표 주거정책)’를
도화지구 506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남동공단에 이어
부평 4공단, 주안 5·6공단을 구조고도화 하여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처럼
도심형 산업단지의 성공모델로 만드는 것은 물론,
산업집적지의 중심으로 재탄생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동인천역, 백운역, 연수·원인재역, 인천역,
제물포역 등 5개 역세권을 착실히 개발하여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생활권 연결과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침체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선 5기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까지
BMW, Boeing, 앰코, 시스코 등 세계적인 기업들을
대거 유치한 것은 물론

코오롱, 대우인터내셔널, 하나금융그룹 등 대기업 유치와
Amkor Technology, 아지노모도제넥신, TOK 등
바이오, IT 등 첨단산업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하나 금융타운을
핵심앵커시설로 조성하여
인천이 국제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유치된 한진의료 복합단지를 통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동아제약, 셀트리온 등
송도 바이오분야 입주기관과 함께

바이오 프론트를 구축하여
세계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기반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와 개교예정인
뉴욕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뉴욕과 같은 패션도시로 만들어나가는 한편,

작년 9월에 착공한 로봇랜드가

2조원 이상의 국내 로봇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육성·발전시켜

인천의 산업생태계를 혁신적으로 개선·변화시키고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동력인 영종복합리조트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음으로써

인천을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 CARE(Child-, Edu-, Job-)를 통한 도시의 선순환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상보육 전면 실시와 더불어
부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공공형 어린이집을
74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하겠으며,
전체 어린이집의 5%인 국·공립어린이집을
10%로 확대하여 고품질의 보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들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둘째아 출산 100만원,
셋째아 부터 3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변함없이 지급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따른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등
보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교육의 도시 賢母仁遷을 만들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었던
인천국립대학교 출범을 시작으로,
청운대학교 개교,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개원,
뉴욕주립대학교를 비롯한
글로벌대학교 개교 등이 이어지면서

서울, 경기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오히려 인천으로 유학을 오는

인천이 교육도시로 가시화되고

현모인천이 현실화되는

가슴 뿌듯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채드웍국제학교 : 전체 703명 중 서울·경기 출신 352명(50%))

(달튼외국인학교 : 전체 245명 중 서울·경기 출신 102명(41%))

금년에도 해외 유명대학 및 국내대학

유치 문제가 해결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나에서 열까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예술영재학교 실질적 지원 등을 포함한

공교육 내실화 및 강화 사업을 통하여

교육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확대로

교육격차를 해소시키는 것은 물론,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보편적 교육복지실현과 교육
국제화특구 선도모델을 창출해 가면서
2015세계교육회의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로 시민의 애환을 줄이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만큼
금년에는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제물포스마트타운 사업의 운영결과
350개사를 창업시키고 212억 6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존 조직을 확대 강화한
JST일자리지원본부를 설립하여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의 통합운영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1만 6천 여개였던 어르신 일자리를
1만 8천개로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7개의 사회적기업과 46개의 마을기업을
자립 가능하도록 육성·지원하는 것은 물론
125개의 협동조합의 육성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문화가 융성하고 시민 모두가 복지를 누리는
더불어 사는 안전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유네스코의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지정을 계기로
한층 커진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교육·문화의 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고,
기존 56개였던 작은 도서관도 62개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역축제를 아시아경기대회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청소년과 소외계층이 문화예술을 더 많이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복지를 누리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외에
29개의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약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기본급을 2013년 대비 4%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와 더불어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있는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안심폰” 사업,
새로운 만남을 위한 “합독사업” ,
자살예방을 위한 “어르신 사랑방 사업”,
여성을 위한 “여성안심택배 및 홈방범 서비스,
여성안심 휴(休)택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풍요롭고 따뜻한
복지 문화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천을 한반도 평화협력의 거점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국지적인 불안정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시는
연이용객 4천만명을 돌파한 인천공항과
국제여객 1백만명, 국내여객 1백70만명을 돌파한
인천항을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

송도신항과 국제여객터미널을 건설하고,
백령도와 중국 산둥을 잇는 직항로를 개설하여
시너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남북화해와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경협을 통한
트라이앵글 경제 축을 구축하여
황해를 제2의 지중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물론,

평화가 정착되고
인천이 남북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CF와 함께하는 글로벌 녹색수도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GCF 사무국이 오픈되면서
인천은 국제도시로서의 명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명성에 걸 맞는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사무국의 조기정착과 후속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개최도시로서 녹색생활실천을 통한
저탄소 친환경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5R운동(절약, 재사용, 재활용, 재생에너지, 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강화와 위상제고를 위하여
몽골 “인천 희망의 숲”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월미공원, 연희근린공원, 계양근린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인천대공원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로서
이미지 제고에도 힘쓰겠으며,
도시를 숨쉬게하는 생태하천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시의 시정운영방향과
주요사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불황과 저성장의 기조로

시정업무 추진 과정에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예상됩니다만,

금년은 아시아경기대회가
인천에서 개최되는 해이면서
인천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유수의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300만 경제수도,
도약하는 인천'으로 질주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항해의 순항을 위해서
저와 공직자 모두는
동주공제(同舟共濟)하는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동주공제 : 같은 배를 타고 천(川)을 건넌다는 내용으로
이해(利害)와 환란(患亂)을 같이 했다는 것을 뜻함.)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 새해 시정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6일

인천광역시장 송영길